

## [ 오피니언 ]

## 테마칼럼

정치·국제

제1면

문화·스포츠

정치·국제



정금희

“

테오는 고흐를 위해  
‘태어났고, 살다가, 죽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4살 아래인 동생 테오가 없었더라면 고흐의 명작들도 태어나지 못했다.

”

고흐는 친교적인 성격이 아니었고 혼자 있기 를 좋아하고 독서와 자연을 관찰하기를 좋아했다. 그러던 중 뿐만이 아닌 학교를 그만두고 15세에 숙부가 경영하는 가게에서 점원으로 일했다. 그러나 그 생활도 오래 가지 못하고, 하 고 싶은 일은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다가 전도사가 됐다. 벨기에의 보리니주 탄광 지역에서 전도 일을 했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아 또다시 하고자 하는 일을 고민한 끝에 화가의 길을 선택하게 된다. 고흐는 동생 테오에게 그러한 자신의 뜻을 전한다. 고흐처럼 점원에서부터 시작한 테오는 사회에 적응을 잘하여 화상으로서 점점 성공할 수 있었다. 이런 테오는 고흐에게 화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용기와 희망을 주었고, 그림만

그릴 수 있도록 경제적인 후원을 약속하였으 며, 고흐가 죽을 때까지 그 약속을 지켰다.

고흐는 동생이 보내준 돈으로 10년 동안 정 열적으로 그림을 그려 880여점이 넘은 작품을 남겼다. 노란색과 코랄트색의 환상적인 색의 변화, 소용돌이 기법 등으로 너무도 잘 알려진 많은 명작들을 창출했다. 또한, 병약한 고흐는 충동적인 성격과 행동으로 사람들을 어울리기 못 했고, 간질, 귀앓이 병으로 밭작을 하곤 했다. 이런 혈을 위해 테오는 보호자로서 책임을 맡았다.

결국, 1962년 네덜란드에서 고흐 재단이 설립되었으며, 오늘날 고흐는 세계적 거장으로 자리매김 되었다. 비록 고흐는 힘든 삶을 영위했지만 걸작들을 창출했으며 그의 명성으로 네덜란드는 물론이거나 그가 거주했던 프랑스 지역에서는 관광산업이 성공하고 있다.

고흐와 테오의 형제에는 지난간 과거의 이야 기로 남겨져온 산 있다. 이들의 독특한 형제애, 가족애를 보면서 오늘날 가족이란 의미가 무너져 가고 있는 현실에 다시 한번 끈끈한 가족의 사랑이 무엇인가란 화두를 우리에게 남겨준다. 가족은 사회가 각박하고 힘들 때 일수록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보루임에 틀림없다. 점차 퇴색 돼 가는 가족의 의미가 끈끈하게 되살려져야 할 이유다.

〈전남대학교 미술학과 교수〉

을 되었으면 좋겠다는 등등의 글이 적혀 있었다.

고흐가 사망한 6개월 만에 동생 테오도 확실 한 이유없이 사랑하고 말았다. 테오 부인은 남 겪진 그림들과 형제가 교환했던 편지 660여통 을 잘 보존하였으며, 테오가 뜻다 한 고흐의 그림을 세상에 알리는 데 노력했다. 그녀는 산 가격으로 고흐의 작품을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지만 그러한 유혹을 뿌리치고 고흐 그림의 진가를 알리고자 힘썼다.

한국 자살에 방해화에 따르면 최근 1 주일 동안 광주·전남에서 하루 1명꼴로 자살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생활고를 겪기지 못한 20~40대 청장년층의 자살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기에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것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지난 5년(2002~2006년) 동안 광주·전남지역에서는 모두 3천23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자살 이유 중 1위는 우울증이다. 이 기간 동안 무려 1천222명이 우울증 때문에 스스로 목숨

## [ 시설 ]

## 불황에 잇단 ‘생활고 자살’ 방지만 할건가

경기침체의 여파로 실직과 생활고를 끊었다. 이어 ▲신병 비관 613명 ▲치정 및 배우자 부정 414명 ▲가정불화 263명 ▲사업실패 154명 등의 순이 있다. 자살 이유는 다르지만 상당 부분이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불황이 생계책임이 막막한 ‘벼랑 끝 계층’을 죽음의 막다른 길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자살은 개인의 문제이지만 그 책임은 결코 개인만의 것이 아니다. 이를 벼랑 끝 계층의 자살은 빈곤층을 끌어안지 못한 우리 사회의 느슨한 사회 안전망에서 아기됐다는 점에서 ‘사회적 탄생’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자살은 사회의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핵심 지표 중의 하나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데도 자살률의 증가세가 세계 최고수준이라는 점은 우리나라의 사회적 불안전성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정부의 출ют한 사회 안전망 구축이 시급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 北 ‘경거망동’ 하지 말고 현실 직시해야

최근 남북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곳곳에서 북한의 군사도발 징후가 감지되고 있다. 핵경복도 무수단 기지로 대포동 2호 미사일 주정 물체를 운반한 데 이어 발사에 필요한 설비를 추가로 운송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또한 서해상에서 조업하던 중국 어선들이 모두 자취를 감췄다. 1999년과 2002년에 벌어진 1,2차 연평해전 직전 때와 비슷한 상황이다. 최근 북한군 수뇌부가 실전에 대한 야전군 출신으로 전역 교체된 것도 심상치 않다. 지난달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와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잇따른 대남 ‘협박성명’ 이후 북측이 군사적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이 높아진 게 사실이다.

실제로 북한이 오관해 군사도발을 한다면 그 결과는 너무나 뻔하다.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은 더욱 심화되고 남북관계는 물론 북·미 관계도 돌이킬 수 없는 극단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북한의 군사도발은 오관이고 착각인 것이다. 유명한 외교통상부 장관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받게 될 제재를 감안할 때 절대 북한에 이익이 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북한은 며칠마다 가지고 앉을 군사도발로 스스로 해낼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기보다 지금이라도 6자회담에 복귀하는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 이길만이 북한이 사는 길이다. 정부도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를 북의 도발에 군사적 대비를 빙팅없이 해야함은 물론이다.

## 無等鼓

른 곳에 전염된다.

최근 사상 최악의 컴퓨터 바이러스가 나타나 네트워크들이 떨고 있다. ‘2009 바이러스’로 명명된 악성코드 ‘Win32/AimBot.worm.15872’가 그것이다.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윈도 오른쪽 하단에 나오는 일자가 2009년 1월 1일 오전 10시로 고정돼 설정이 불가능해 진다. 수동으로 날짜를 바꿔도 10분

정도 지나면 다시 2009년으로 자동 수 정된다.

이 바이러스는 무한정 파일을 생성, 컴퓨터가 메모리를 소모한 끝에 결국 다운 되도록 만든다. 한마디로 단 한번의 감염에 컴퓨터를 되살릴 수 없다.

하지만 26년이 지난 오늘에는 알려진 바이러스의 종류만 수십만개에 이른다.

인터넷의 발달로 전파속도는 가히 상상을 초월한다. 단 하루면 전세계로 확산된다.

대부분의 컴퓨터 바이러스는 감염된 파일을 실행시키기 전에는 활동하지 않는다. 부트 바이러스는 감염 디스크로 부팅을 시켜야만 감염되고, 파일 바이러스는 감염된 파일을 실행시켜야만

막아 보는 게 어렵지...

〈김일환 아론매체부장 kim8@kwangju.co.kr〉

## 중고칼럼



고재경

## 기고



홍준연

농산물 수입방지에 확대되면서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와 자자체의 각종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정작 필요한 것은 농업이라는 산업의 자생력을 키우는 일이다.

지난 2001년부터 농협은 농가의 실익을 높이고 산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연합사업을 시작했다. 연합사업은 농협의 연합마케팅사업은 조합간 협동과 계통간 역할 분담을 통해 규모화와 전문화를 이루고 이를 통해 농협의 시장고접력을 높여 농업인의 소득을 높이는 마케팅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이같은 성공과정에는 자자체의 전폭적인 도움도 뒷받침했다. 나주시는 전국에서 처음 학교급식지원조례를 제정

## 연합사업으로 산지 유통 활성화를

지금까지 농산물 판매방식은 작목별 또는 개별농협단위로 유통업체 또는 도매시장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현재의 연합마케팅은 생산농가를 광역단위로 재편, 지역농협간 협력을 통해 농산물의 입식과 출하시기를 조절하고 일정 수준의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일에 관심을 쏟는다.

이로써 농민은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됐고, 지역농협은 생산관리와 상품화를 담당하며 연합사업은 출하창구 일원화를 통한 전반적인 마케팅 기능을 맡는 등 구조적인 시스템을 갖춰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전남지역에서도 농협지역본부의 광역단위 연합사업을 비롯해 나주·장성·담양·진도 등 시·군단위에서 산지연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나주연합사업단은 농업인과 농협, 자자체가 함께 이루어 협력사업의 모

델로 우뚝 서고 있다. 나주연합사업단은 지난 2003년 나주관내 13개 지역농협과 농협 나주지시부가 참여하여 발족했다.

초창기 농가들이 개별적으로 확보한 판로가 있어 참여 자체를 끌려갔지만 ‘비단고’와 ‘청미래’라는 공동브랜드를 개발한데 이어 대형유통업체와 도매시장 공략에 성공하면서 농업인들의 소득과 생산농산물의 품질이 향상되고 더불어 참여율도 높아지는 추세다.

이같은 성공과정에는 자자체의 전폭적인 도움도 뒷받침했다. 나주시는 전국에서 처음 학교급식지원조례를 제정

한 뒤 각 학교에서 급식 농산물을 구입할 경우 연합사업단을 이용토록 했다.

그 결과 나주연합사업단은 농식품부의 공동마케팅조직에 선정돼 오는 3월 대규모 산지유통시설(APC)을 완공하고 나주지역 유통을 책임지게 된다.

산지 유통화를 통해 소비자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농협의 연합사업은 전국 61개 시·군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나주지역 연합사업의 성공에서 보았듯이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자자체의 지원, 판매주체의 마케팅 역량 강화가 연합사업의 성공요인이라 할 수 있다.

전남농협은 올해 산지유통혁신을 위해 ‘산지유통 111운동’을 전개한다. 1시군 1연합사업단을 1년내 유통하는 사업이다. 산지유통활성화는 연합사업의 중심이 돼야 한다. 연합사업의 활성화는 전남농산물의 자생력을 키우는 키워드이며, 이를 통해 산지 유통화를 통해 소비자시장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특히 전남농협은 산지 유통화를 통해 소비자

시장에서 농산물을 구매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한편, 농협은 전국 13개 지역농협과 협력하여 전남농협을 중심으로 전국 61개 시·군에서 연합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전남농협은 전국 61개 시·군에서 연합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전남농협은 전국 61개 시·군에서 연합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 마트 계산원 유통·복지정책 등 직업병 심각

할인마트에서 1년 가까이 판매원으로 일하다가 최근에 그만 뒀다. 서서 일하는 것이 쉬운 일도 아닐 뿐더러 장시간 선 자세로 일을 하다 보니 디스크 증세와 함께 하지정맥류까지 생겨서 그만 뒀다.

원래 법적으로도 서서 일하는 직종에는 근로자를 위해 때때로 앓을 수 있는 의자를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들었다. 그러나 내가 근무한 곳은 물류인력과 대부분의 할인점과 백화점 판매코너, 계산대 여직원들 사이에서도 빨리 충격을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으면 좋겠다.

실제로 할인마트나 백화점 판매원들은 근육통에 가장 많이 시달리고 무릎관절 질

해 주는 제도이다. 또한 가해자에게 경제적 능력이 안돼 피해자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국가에서 피해자나 유족에게 일정한 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구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주소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에 설치된 범죄피해구조신청의회에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을 생각해서 이런 제도를 더욱 많이 흥보해 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구제 제도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장해를 당하고서도 가해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기본적으로 지원

광주일보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皓		사장 柳濟喆
1952년 4월 20일 창립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편집국장 曹庚完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 FAX 222-4918	사 회 2 부	2200-692
면 접 부 2200-672	(F A X 227-0118)	<F A X 222-8005>
정 치 부 2200-634	문화생활부	광고마케팅국 2200-521
경 제 부 2200-641	체 육 팀	독자서비스국 2200-651
사 회 1 부 2200-612	사 진 부	여론조사부 2200-679
(F A X 222-4267)	2200-691	<F A X 227-9500>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5
		<F A X 02-773-9335>
※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강요를 준수합니다